

한국의 절망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권진, 민혜영, 강선경

예명대학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의 절망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혜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강선경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

주제어 절망사, 자살, 위험 음주, 약물 중독, 사망원인통계, 사회조사

요약문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절망사 개념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논의의 전반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살펴본 탐색적 연구이다. 절망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이는 개념에 대하여 한국적인 맥락으로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절망사라는 개념의 도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절망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누적적인 박탈로 이어지고 비건강적인 행태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한편 독일과 같은 국가는 미국에 비해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절망사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한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나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절망사 추이를 살펴보면 자살, 음주, 약물로 인한 사망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 데이터 중 12.4%에 달하였다. 위험음주나 자살충동에 대해서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사회적 고립감과 전반적인 삶의 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절망사와 관련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 NRF-2022S1A5A2A03051692)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절망사(絶望死 / Deaths of Despair)는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이 발견한 사회문제로서, 기대수명의 증가 추세에 역진하는 특이한 상황을 함축한 개념이다. 디턴은 2013년에 저술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에서 지난 250년 간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가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기 소득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교육과 문화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남녀 간 성평등 지수가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1950년 45.51세에 불과하던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2021년에 72.81세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세기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서서 기대수명의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대수명이 낮아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케이스와 디턴(Case and Deaton, 2015)은 약물 중독, 간질환 그리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미국인 전체의 기대수명을 낮춘 주요한 이유라고 하였다. 즉 약물 중독,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 자살이라는 3대 원인을 절망사(Deaths of Despair)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미국 중년 백인이 겪고 있는 절망사를 약물 오남용, 자살, 알콜성 간질환으로 보다 구체화 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절망사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혔다(Case and Deaton, 2017). 2015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7년 연구에서는 이를 연령대, 성별, 인종 그리고 학력이라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25-64세 인구를 5세 별로 구분하여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1999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흑인에 비해 백인의 사망률이 낮았으나, 2015년 기준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백인의 사망률이 흑인에 비해 높아졌다.

1999-2015년 사망원인에 있어서 가장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절망사로써(약물, 알콜 또는 자살), 미국 백인의 절망사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5.4% 증가) 미국 내 히스패닉은 1.0% 증가, 흑인은 0.1% 증가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비교 국가들의 경우에 절망사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아일랜드(3.0% 증가), 캐나다와 호주(2.5% 증가), 영국(1.0% 증가) 등이었으며,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절망사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였다. 한편, 이제까지 삶의 질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들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소득’의 영향력은 절망사에 있어서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인종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소득액에 있어서 백인이 여전히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망사의 원인과 발생이 과연 미국에만 국한된 것인가? 유럽에서도 절망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스와 디턴의 절망사 논의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의 변화가 특정 계층에 절망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세계화, 저학력·저숙련 노동의 아웃소싱, 자동화 등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서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도 절망사라고 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알코올성 간질환, 자살의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들이 있었다. 특히 아일랜드는 3.0%의 증가라는 비교적 큰 증가율을 보였다.

즉, 이러한 절망사는 미국에서 극적으로 나타났을 뿐, 비슷한 변화를 겪었고 겪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도 점검해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발표된 베체티 & 콘조의 연구는 절망사를 유럽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미국 중년의 백인들이 겪는 절망사가 유럽에서도 나타날 것인지를 논의하였음(Becchetti and Conzo, 2021). 이 연구에서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절망사의 대리변수로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낮은 소득, 고소득에 대한 기대감, 저학력, 저숙련, 빈약한 사회적 관계성, 삶에 대한 실패감과 충격을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로 주장하였다.

한국은 자살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약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 사회(홍성국, 2018)’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절망사의 위협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에서 자살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1990년대부터 OECD 평균을 상회하였고, 2021년도 WHO 자료 기준으로 30대와 40대, 60대와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5).

한국 사회의 알코올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910명이고, 2000년도에 2,69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한 수치이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알코올 중독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20-30대의 젊은 계층에서 알코올 관련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수가 약 152만명에 이르며(87만명 정도는 알코올 남용, 65만명은 알코올 의존), 지역사회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비율은 0.59%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 재활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한의신문, 2021. 10. 18일자,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홈술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관리 부실”). 약물 오남용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서 마약류사범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0,000여명에서 1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9). 강은영과 조소연(2014)의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II)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 3,930명 중 9.2%인 361명 정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망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이는 개념에 대하여 한국적인 맥락으로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절망사를 구성하는 자살,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 자료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영역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에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절망사에 대한 연구와 향후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절망사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살, 약물 및 알코올의 오남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절망사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논의

1. 절망사의 개념과 실태

절망사의 개념은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 역전 현상에 대한 포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중년이나 그 이상 연령대 인구의 사망률 감소는 현대사회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추세처럼 보였다(Cutler et al., 2006). 사망률의 감소는 전반적인 사회의 진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덜 하는 것과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보급, 예방적 행위의 증진, 그리고 의료 기술과 서비스 수준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강 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망률의 감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Ford et al., 2007).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미국의 경우 연령과 인종으로 나누어 사망률을 분석하였을 때 기존의 보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과 유병률은 통념적 판단과 같이 꾸준히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망률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래 <표 1>에 따르면, 45-54세에 해당하는 중년 백인의 사망률은 1999년 대비 2013년에 33.9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중독(poisonings)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가장 높아졌고, 다음으로 의도적 자해(intentional self-harm), 간경변(Chronic liver cirrhosis) 순이었다. 동기간 흑인과 히스패닉의 전체 사망률은 각각 -214.8명, -63.6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독과 의도적 자해의 사망률은 비교적 약간 높아졌다. 2013년 기준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인종은 흑인으로 10만명 당 581.9명이었는데, 1999년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로 보았을 때, 백인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독과 의도적 자해, 만성적 간경변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사고의 경우

-0.9명 감소하였다.

〈표 1〉 미국 인종별 사망률 변화 : 45-54세, 1999년 대비 2013년의 결과

구분	전체 사망원인	중독	의도적 자해	교통 사고	간경변
백인	33.9	22.2	9.5	-0.9	5.3
흑인	-214.8	3.7	0.9	-4.3	-9.5
히스패닉	-63.6	4.3	0.2	-4.9	-3.5

자료 : Case와 Deaton(2015)의 table 1.을 필자가 재구성

미국 중년 계층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항목들에서도 정신건강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고통(pain)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2〉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7-1999년 평균 대비 -6.7% 였으며,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 증가하였다. 목이나 안면 통증과 같은 고통은 각각 2.3%, 1.3% 증가하였다. 정신적 어려움의 비율 또한 0.9% 증가하였다. 위험한 수준의 과음의 비율 또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국 45-54세 백인 유병률 변화 : 건강에 대한 자기보고

구분	2011-2013 평균	1997-1999 평균 대비 변화량
신체적 건강 영역		
매우 좋음	55.9%	-6.7%
그저 그렇	15.5%	4.3%
목 통증(neck pain)	21.1%	2.3%
안면 통증(facial pain)	6.8%	1.3%
정신적 건강 영역		
정신적 어려움*	4.8%	0.9%
알콜 소비		
과음 위험	7.4%	1.7%

주 : 정신적 어려움은 Kessler 6 score의 13점 이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정신적 질병 수준임.

자료 : Case와 Deaton(2015)의 table 2.를 필자가 재구성

다음의 〈표 3〉은 50-54세를 기준으로 1999-2015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망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별로 세분하고 비교 국가들은 인종 등 구분 없이 단일하게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미국 백인의 약물, 알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 백인은 1999-2015년의 기간 동안 약물, 알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연평균 5.4%씩 높아지는 등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0.1%, 1.0%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증

가을을 보였다. 비교 국가들 중 약물, 알콜, 자살로 인한 연평균 사망률이 높아진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이며 각각 1.0%, 3.0%,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와 독일은 약물, 알콜, 자살로 인한 사망률에 있어 -1.2%, -2.3%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한 비교 대상인 일본의 경우에도 -2.1%를 나타냈다.

〈표 3〉 사망률의 연평균 변화 : 1999-2015년, 50-54세

구분		전체 원인	약물, 알콜, 자살	심장질환	암
미국	백인	0.5	5.4	-1.0	-1.1
	흑인	-2.3	0.1	-2.7	-2.4
	히스패닉	-1.5	1.0	-2.5	-1.5
영국		-2.1	1.0	-4.0	-2.3
아일랜드		-2.6	3.0	-5.1	-2.3
프랑스		-1.3	-1.2	-2.9	-1.7
독일		-1.9	-2.3	-3.5	-2.1
스웨덴		-2.1	0.8	-3.1	-2.1
일본		-2.2	-2.1	-1.4	-2.8

자료 : Case와 Deaton(2017)의 table 2.를 필자가 재구성

또한 교육 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특기할만 하다. 25-59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한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50-54세의 학사 학위 미만의 학력을 가진 남성은 1998-2015년 사이에 10만명당 762명에서 867명을 증가한 반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남성은 10만명당 349명에서 24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육 수준에 따른 사망률 비교 연구 결과는 Rober와 Elaine(2013)가 검토한 문헌들과 일치한다. Olshansky et al(2012)에서도 고등학교 학위가 없는 백인 남녀의 기대수명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육 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Mackenbach et al(2016)의 연구에서 1990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11개 유럽 국가(또는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가장 낮은 수준의 학력 집단에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중년 계층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보고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1999-2002년 사이에 자가건강평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50세 72%가 스스로 건강하거나 양호하다고 평가한 반면, 고등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은 49%만이 건강하거나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백인 중년 계층의 만성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증가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 또한 증가하였다. 자살의 위험요소인 통증과 관련하여, 편두통과 같은 통증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통증 수준이 높았고, 다른 질병에서도 유사하였다.

정리하자면,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 증가는 다른 국가나 미국 내 흑인과의 비교에서 반대

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미국 내 중년 백인의 사망률 증가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며 건강에 대한 자기보고에서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잠정적 결론으로 자살, 약물 중독, 알콜 남용으로 인한 절망사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누적된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주장된다(Case and Deaton, 2017). 노동자 계급의 백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논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일자리 기회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쇠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들은 세계화와 산업사회의 붕괴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기회 박탈, 이혼, 자녀와의 관계 악화 등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여러 차원의 변화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사회경제적인 지지기반이 약화되었고, 이전 세대를 따라서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계층 사다리를 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혼 또는 친밀한 동반자와의 관계 형성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박탈당했다. 노동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전환하였으며, 일부는 아예 노동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대학 학위 이상의 남성들과 달리, 고졸 이하의 남성들은 결혼을 감소, 동거의 증가와 함께 혼외 자녀의 증가 현상이 커졌고,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자녀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에 동거가 일반적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덜 불안정하고 결혼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한편 흑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박탈이 그리 낮설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불공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절망사는 개인적 요인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약물 또는 알콜을 선택하거나 자살에 이르게끔 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케이스와 디턴은 뒤르켐(1987)의 이론적 논의를 따르고 있다.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적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을 때 절망한다. 이러한 절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는 자살을 통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과음, 흡연, 약물 남용, 심장질환 등에 대한 예방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근거에는 사회적, 경제적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절망사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 특정 계층(중년 백인)을 통해 나타나는 누적된 박탈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삶의 부정적 행동(알콜, 약물 남용과 자살)으로 이어진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현상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황적 맥락이나 실증적 결과들은 절망사의 개념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 절망사 관련 선행연구

케이스와 디턴이 제시한 절망사의 개념은 중년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재해석 될 수 있다

(Cutler, 2017). 즉, 중년이라는 생애주기의 특성으로 미루어보면 다른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중년들은 스트레스를 더욱 받게 된다. 이때에는 대부분의 중년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으며, 여러 가지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년에 접어들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되며, 임금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은퇴 프로그램은 65세 또는 62세라는 연령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불안감은 더할 것이다.

미국 내 사망률의 증가에 대하여 지역별 경제 변화와 함께 살펴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Raj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1980~2000년 사이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나 제조업 일자리의 변화는 기대수명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은 산업화 된 중서부 지역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웨스트 버지니아와 켄터키는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사망률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한편 플로리다나 네바다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에서도 기대수명이 크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업률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뉴잉글랜드에서도 오피오이드와 연관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절망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즉 안정된 일자리의 감소와 누적된 박탈이 절망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케이스와 디턴의 주장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즉 사회경제적인 변화 외에 다른 요인들이 절망사의 핵심 개념인 자살, 알콜,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서로 다른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또한 사망률의 증가는 고통의 증가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증이나 불안, 우울 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독의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망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중독은 영구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오피오이드 약물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것은 절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기대수명을 끌어올리기에 적절한 안정적인 소득이나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편 특정 코호트에서 절망사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 집단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인 1970년대로 보면, 노동시장의 악화는 현재 중년기에 관찰된 건강 악화와 관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는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반복적 노출로 인하여 결국 면역체계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은 낮은 임금과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이 적어짐에 따라 삶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가설은 절망사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연구의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스트레스가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에 원인이 되어 개인의 불행을 설명하기도 한다.

절망사와 관련해서 계량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Rehder et al(2021)의 연구는 절망사의

역동을 질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Dannefer(1987)의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를 차용하여 사회경제적인 불리함에 노출된 계층이 점차 건강이나 소득, 삶의 질의 다차원적인 빈곤에 처한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계층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출산된 아이는 인지 발달이나 기능적인 부문에서 모두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는 것이다(Duncan et al., 1994).

절망사의 핵심 대상자는 중년 백인 코호트이면서도 저학력인 사람들로써,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학력이 누적된 불리함의 희생자라고 보고, 결국 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건강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로 설명하였다. 저학력자들이 산업의 변화에 고학력자에 비해 빠르게 적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학력자가 실업을 겪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차원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건강 행태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결과로서 절망사에 처해있는 하나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절망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도식화하였다. 시작은 ‘실업’이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의 위축이 영향을 미쳐 결국 자기고립으로 이어지는 행동과 약물, 알콜, 자살생각 등으로 이어지는 정신건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Haan et al(2019)는 독일의 중년을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절망사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 인종적 구분보다는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생활 환경이 서로 달랐음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990-2015년의 기간 동안 독일의 중년 하위그룹에서 사망률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일의 복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폭넓은 실업보험, 사회수당과 건강보험이 사회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미국에 비해 관대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며, 특히 중년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약물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관련 규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의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scher et al., 2014; Hauser et al., 2017).

III. 절망사와 한국 사회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하나 Axinn와 Levin(1992)은 경제적 수준, 사회에 대한 관점,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역사 및 문화적인 유산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한편 미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인데다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수준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이다. 이

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후진적인 국가임을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힘을 쏟은 반면, 미국은 재분배보다는 성장과 시장의 자유를 확대·유지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여왔다.

역사적으로는 유럽 구체제에 반발하여 개인적인 수준의 자유를 강하게 추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구속력이 생기기 전부터 뿌리내린 자본주의 정신을 토대로 공업과 상업의 발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대공황 시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미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은 개인주의로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두며,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된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실제로써 존중하나, 공동체나 사회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실존하는 개인에 우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산물 또는 그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복지대상자들은 무능력하고 게으른 존재로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강하고,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개인으로 여기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Chaskin et al(2019)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탈의 동태적 개념인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언론이나 정부 문서 등에서는 학계에 비해 훨씬 적게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유럽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개념적 유용성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빈곤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에 익숙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도시 하위계급(urban underclass)’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미국 사회학자인 Wilson(1987)에 따르면 도시 하위계급은 ‘저학력,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며 사회적 사다리의 최하층에 위치한 대규모 인구집단’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희박한 채 배제되어지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시 하위계급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구조적인 관점과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Chaskin et al., 2019).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자선조직협회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도시 하위계급을 복지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이자 실패한 개인으로 간주하는 이론적인 견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한편 도시 하위계급이 대규모로 나타나게 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노동시장 개혁 및 관련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난 것은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 이후 미국은 보수적이고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 꾸준히 복지 축소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 자산조사에 기반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었다. 급기야 복지급여로 인해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사회적 일탈이나 범죄를 양산한다는 보수주의적 담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얻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삶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 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지는 않으나, 다차원적인 빈곤으로 접근하여 소득, 고용의 차원에서 미국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은 ‘공유된 번영(Shared Prosperity)’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약 2배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현재까지는 ‘공유된 번영의 상실(The Loss of Shared Prosperity)’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거의 정체되었고, 고소득 계층에서만 소득이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나 중산층 이하의 소득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약 0.4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고용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해왔다. 1999-2014년 사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4.2% 감소하였으며, 여성 빈곤율은 29.7%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남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5.6%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48.7%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아지면서 빈곤율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인종적 차원에서 소득이나 고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흑인과 히스패닉 이었다.

이상의 맥락으로 보면, 절망사라는 현상을 포착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여전히 절대적 빈곤 계층으로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또는 소득계층 중심의 논의에 머물렀다면 절망사 현상은 포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절망사 개념은 산업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선진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으나, 그로 인한 빈곤, 배제를 특수한 인종, 연령대, 학력 계층에서 경험한다는 것이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그물망이 없다는 것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즉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과,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예방책, 개입책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축으로 배제의 계층을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다만 OECD 통계자료 등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젠더 차이와, 교육의 불평등, 세대 간 격차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공통된 내용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분석이 기초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V. 한국의 절망사 실태 분석

절망사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만큼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15년에 최초로 제시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절망사의 개념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절망사의 개념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사에 대한 연구는 실증분석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절망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Case와 Deaton 역시 특수한 현상을 절망사라고 이름 붙였지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명확한 범위의 연구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절망사의 원인과 배경, 절망사의 영향 아래 있는 계층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추적하고 있다.

유럽의 연구들은 우울을 절망사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절망사의 개념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우울에 대한 연구와 큰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절망사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고 한국의 맥락에 적용하기 위한 첫 시도으로써, 우선 절망사의 배경이 된 기대수명과 사망률, 유병률을 OECD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이를 살펴보고 해당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이후에서는 죽음이라는 결과에 집중하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 알코올,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회조사 자료를 통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절망사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 <표 4>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기대수명을 나타내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84.7세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으로 77.3세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0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가장 최신인 2018년 기준으로 82.7세를 나타내었다. 성별과 연령(40세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낮았으며, 비교 대상 8개국 중 한국은 기대수명이 가장 낮았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표 4>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 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프랑스	79.2	79.4	80.3	81.0	81.4	81.8	82.1	82.8	82.7	82.8	82.3
독일	78.2	78.5	79.2	79.8	80.2	80.5	80.6	81.2	81.1	81.0	81.1
아일랜드	76.6	77.7	78.6	79.3	80.2	80.8	80.9	81.4	81.7	82.3	-
일본	81.2	81.8	82.1	82.4	82.7	82.9	83.2	83.7	84.1	84.3	84.7
스웨덴	79.7	79.9	80.6	81.0	81.3	81.6	81.8	82.3	82.4	82.6	82.5
영국	77.9	78.3	79.0	79.5	79.8	80.6	81.0	81.4	81.2	81.3	80.4
미국	76.7	77.0	77.6	77.8	78.1	78.6	78.8	78.9	78.7	78.7	77.3
한국	76.0	76.8	77.8	78.8	79.6	80.2	80.9	81.8	82.4	82.7	-

자료 : OECD Stats(2022.3.20. 인출)

다음 <표 5>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사망률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비교 대상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다가(아일랜드 1,139.0명, 한국 1,131.7명)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에는 595.1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사망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836.1명)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5〉 OECD 주요국의 사망률 추이(연령 표준화 / 10만명 당)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프랑스	856.9	850.1	788.8	747.7	725.4	701.1	685.6	642.3	659.4	-	-
독일	954.9	940.6	898.7	853.8	835.0	811.1	784.8	773.3	776.7	788.7	761.5
아일랜드	1139.0	1037.7	956.0	909.1	857.3	786.4	800.9	760.7	-	-	-
일본	708.1	671.7	658.9	644.6	633.5	622.4	610.6	583.2	566.5	556.3	-
스웨덴	879.3	875.1	825.7	800.6	783.3	757.0	752.4	713.1	709.5	698.2	-
영국	-	967.1	917.6	864.9	845.1	790.6	778.0	752.3	762.6	-	-
미국	994.6	964.4	912.8	884.8	863.5	835.3	835.5	838.5	836.1	-	-
한국	1131.7	1064.1	978.8	904.8	825.2	778.6	753.8	681.7	654.2	633.8	595.1

자료 : OECD Stats(2022.3.20. 인출)

다음 <표 6>은 유병률의 지표로서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비교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 인식은 ‘ 좋음 ’ 과 ‘ 매우 좋음 ’ 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산이다. 한국은 2005년에 43.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017년에 29.5%까지 낮아졌다가 2019년 들어 33.7%로 조금 높아졌다. 2019년 기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주관적 건강인식을 보이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이었으며 독일은 2007년에 59.8%로 비교 기간 중 가장 낮았다가 2019년은 65.5%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는 약 2배 정도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인식(Good+Very Good)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프랑스	68.7	71.1	68.6	67.6	67.1	67.8	67.4	66.6
독일	60.1	59.8	65.2	64.8	64.9	64.5	65.4	65.5
아일랜드	82.7	84.0	83.1	83.2	82.0	82.6	83.2	83.9
일본	-	32.7	-	-	35.4	-	-	36.6
한국	43.9	-	44.8	36.8	35.1	32.5	29.5	33.7
스웨덴	75.6	77.6	78.4	78.5	79.8	77.7	76.5	76.0
영국	74.8	77.4	78.2	77.5	73.7	69.8	74.8	72.9
미국	88.4	87.9	87.9	87.3	87.5	88.1	87.9	-

주 : 미국의 경우 ‘good’ 과 ‘very good’ , ‘Excellent’ 까지 합친 수치임.

자료 : OECD Stats(2022.3.20. 인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알코올,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로데이터를 토대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알코올, 약물, 자살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알코올은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K70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코드를 합산하였다. 1997년도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543명으로 나타났고, 2020년 기준 4,943명으로 나타났다. 약물은 ‘F11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코드를 합산하였으며 1997년도에 1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20년 365명으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자살은 ‘X65 알콜(메틸 알콜, 부틸 알콜 등)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등의 코드를 합산하였으며, 1997년 5,850명에서 2020년 12,52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사망원인통계 로데이터의 전체 표본수는 142,832케이스이며, 절망사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7,836명으로 집계되어 12.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알코올, 약물, 자살 관련 사망자 수(명)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알코올	2,543	2,575	4,532	4,341	4,524	4,943
약물	16	12	78	152	203	365
자살	5,850	6,256	11,654	15,039	12,956	12,528
합계	8,409	8,843	16,264	19,532	17,683	17,836

다음으로는 한국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절망사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변인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절망사를 구성하는 알콜, 약물, 자살 외에 선행연구들에서 연관 지어 살펴본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고통(Case and Deaton, 2015)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목이나 안면 등의 통증, 정신적 건강 수준,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 등을 지표로 하였다. 극심한 스트레스(Case and Deaton, 2020)는 스트레스와 우울, 감정적 문제를 포함한 정신적 어려움을 부정적인 크기를 자기보고식으로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도에서의 불행 수준(Cutler and Glaeser, 2021)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음’ 이라고 응답한 수치를 살펴 보았으며, 우울(Becchetti and Conzo, 2021)은 절망사의 대리변수로서 우울이 분석되었다.

한편, 절망사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한 Rehder 등(2021)은 절망사의 개념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3가지 요인(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개인사적 사건들, 사회적 규범)은 개인에게 있어 부정적인 스키마(schema)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①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 : 사회적 고립, 지위 상실, 경제적 어려움, 목적의 상실, 이혼이나 질병과 같은 부정적 사건, 주변 자원의 결여, 안정적 고용 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 ② 개인사적 사건들 : 어린 시절의 역경, 사법적 개입의 경험, 경제적인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자살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 ③ 사회적 규범 : 세계관, 청교도 직업 윤리, 자기 탄력성 & 독립성, 남성성 문화, 사회적 기대수준

부정적으로 형성된 스키마는 “나는 실패했다(I’ m broken)”, “나는 도움받을 수 없다(I’ m helpless)”, “나는 약하다(I’ m weak)”, “나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이다(I’ m bad/unworthy person)” 라는 명제들로 이루어진다. 이후에 배신과 같은 부정적 사건을 만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슬픔, 분노, 수치심 등을 겪게 되고, 결국 고립(Isolation), 부정적인 상호관계

(Negative Social Interactions)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서 약물의 오남용이나 우울, 공격성,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위험하고 자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에 다다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사회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사회적 고립으로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감과 함께 자살, 알콜,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서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및 전반적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후 음주 빈도에 대한 추이와 자살 충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절망사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 특히, 삶의 유지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정도를 의미한다(Marsden, 1987).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낮은 상태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어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의 악화를 경험한다(Cloutier-Fisher et al., 2011). 박찬웅 외(2020)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생활 차원의 고립, 경제적 차원의 고립, 정서적 차원의 고립으로 측정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경제적 차원의 고립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과 학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 차원의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고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수준이었다. 1영역에서만 고립감을 보이는 비율은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하였으나, 한편 2개 또는 3개 영역에서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특히 3개 영역(생활, 경제, 정서)에서 모두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표 8〉 한국의 사회적 고립 변화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1영역	10,384	10,791	10,950	10,480	10,489	9,242
2영역	5,718	5,837	5,609	5,215	5,085	5,440
3영역	3,924	4,006	4,153	3,681	3,338	4,679
고립 합계	20,026	20,634	20,712	19,376	18,912	19,361
고립감 없음	13,801	13,504	15,250	16,890	15,261	14,853
전체 합계	33,827	34,138	35,962	36,266	34,173	34,214
고립 비율	59.2	60.4	57.6	53.4	55.3	56.6
1영역 비율	30.7	31.6	30.4	28.9	30.7	27.0
2영역 비율	16.9	17.1	15.6	14.4	14.9	15.9
3영역 비율	11.6	11.7	11.5	10.2	9.8	13.7

다음으로 ‘본인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감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계층

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6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58%로 다소 낮아졌다.

〈표 9〉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긍정	12,484	11,847	9,418	9,420	8,817	9,720
부정	20,543	19,974	23,207	22,816	22,523	21,131
모르겠다	4,985	5,827	6,657	5,247	4,970	5,572
긍정 비율	32.8	31.5	24.0	25.1	24.3	26.7
부정 비율	54.0	53.1	59.1	60.9	62.0	58.0

‘전반적 생활여건의 변화 인식’은 현재 생활에 대한 인식으로서, 조사 당시에 인식하는 개인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의 절망사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백인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적된 박탈과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은 2021년 들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라고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긍정응답이 증가하고 부정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표 10〉 전반적 생활여건의 변화 인식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긍정	10,557	10,953	15,054	15,310	17,256	11,405
부정	9,658	7,658	4,721	3,919	2,794	7,886
변화없음	13,612	15,527	16,187	15,653	14,123	14,923
긍정 비율	31.2	32.1	41.9	43.9	50.5	33.3
부정 비율	28.6	22.4	13.1	11.2	8.2	23.0

사회조사에서는 음주, 자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의 경우 음주 여부에서 시작하여 음주 빈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자살은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월 3회 이하로 음주를 한다는 응답은 2016년도에 55.6%였다가 2021년에 57.0%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주 1~4회로 응답한 수치는 2020년 들어 37.8%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거의 매일 음주를 한다는 응답은 5%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비율은 2021년에 8.5%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현재 4.9%까지 낮아졌다(〈표 12〉 참조).

〈표 11〉 음주 빈도 추이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월 3회 이하	13,801	13,390	11,785	12,201	11,906	11,781
주 1~4회	8,342	8,058	8,031	8,528	8,601	7,816
거의 매일	1,068	1,352	1,192	1,204	1,153	1,063
월 3회 이하	59.5	58.7	56.1	55.6	55.0	57.0
주 1~4회	35.9	35.3	38.2	38.9	39.7	37.8
거의 매일	4.6	5.9	5.7	5.5	5.3	5.1

〈표 12〉 자살 충동 추이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있음	2,859	3,118	2,488	2,334	1,837	1,866
없음	33,987	33,770	34,755	36,218	35,624	35,884
있음	7.8	8.5	6.7	6.1	4.9	4.9
없음	92.2	91.5	93.3	93.9	95.1	95.1

V. 논의 및 결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기대수명은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사망률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미국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의 기대수명과 낮은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낮은 의료보장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절망사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의료자원의 분배 수준이 높은 편이며, 특히 회피 가능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의료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에서는 비교국가들 중 양호한 수준이나, 주관적 건강인식과 같은 지표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고 비싼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주관적 건강인식은 한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보이는 것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상대적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Case와 Deaton의 논의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지표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Case and Deaton, 2018: 74)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신뢰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한국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의료적 수준이 높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삶이나 나아가 웰빙의 수준은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의료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우나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정반대의 한국의 상황은 다른 듯 하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보건의

료 정책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않으며, 한국은 관대한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절망사가 낮은 의료혜택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이오피드의 처방이 만연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쉽게 받는 환경인 반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건강 증진을 내세운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망원인통계로 본 알코올, 약물, 자살의 문제는 몇가지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약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이다.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는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증가 추이로 보면 급격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원인통계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알코올과 약물로 인한 사망원인통계치는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절망사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조사 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전반적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 경제, 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구 비율이 2021년에 13.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서 3.9%p 높아진 수치이다. 사회적 계층의 이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은 2019년까지 높아지다가 2021년 들어 조금 낮아졌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2021년 들어서 부정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021년에 크게 줄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이 크게 늘었다. 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자살 충동 역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8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약간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절망사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문제가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거시적인 변화라는 큰 파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표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의 그물이 여러겹으로 두텁게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은 영역별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절망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절망사의 원인과 배경으로 지목된 몇 가지 변수와, 절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알코올, 약물의 오남용 및 자살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다루어본 결과로 객관적인 지표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질적으로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은 절망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정책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으며 약물에 대한 규제와 실태 파악, 정책으로서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분은 하루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은영 · 조소연, 2014,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태완 · 김기태 · 정세정 · 이주미 · 최준영 · 강예은 · 김보미 · 정재훈 · 안주영 ·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 대검찰청, 2019,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Axinn, j. and Stern, M. J., 2005, *Social welfare: A history of the American response to need*, 6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Becchetti, L., and Conzo, G., 2021, “Avoiding a ‘despair death crisis’ in Europe: the drivers of human (un)sustainability” ,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485-526.
- Case, A. and Angus, D., 2015., “Rising Morbidity and Mortality in Midlife among White Non-Hispanic American in the 21st Century”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49): 15078-15083.
- Case, A., and Angus, D.,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97-443.
- Chaskin, R. J., Lee, B., and Jaswal, S., 2019, *Social Exclus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Actors, and Impacts from Above and Below*,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tty, R., Stepner, M., Abraham, S., Lin, S., Scuderi, B., Turner, N., Bergeron, A., and Cutler, D., 2016,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the United States, 2001-2014” , *Jama*, 315(16): 1750-1766.
- Cutler, D. M.,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Comments and Discussion”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444-452.
- Cutler, D. M., and Glaeser, E. L., 2021, “When innovation goes wrong: technological regress and the opioid epidemic”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4): 171-96.
- Dannefer, D., 1987, “Aging as intracohort differentiation: Accentuation, the Matthew effect, and the life course” , *Sociological Forum*, 2: 211-236.
- Duncan, G. J., Brooks-Gunn, J., and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 Fischer, B., Gooch, J., Goldman, B., Kurdyak, P., and Rehm, J., 2014, “Non-medical prescription opioid use, prescription opioid-related harms and public health in Canada: an update 5 years later” ,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 e146-e149.
- Ford, E. S., Ajani, U. A., Croft. J. B., Critchley, J. A., Labarthe, D. R., Kottke, T. E., Giles, W. H. and Capewell, S., 2007, “Explaining the Decrease in U.S. Deaths from Coronary Disease, 1980-2000” ,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6(23): 2388-2398.
- Haan, P., Hammerschmid, A., and Schmieder, J., 2019, “Mortality in midlife for subgroups in Germany” ,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14: 100182.
- Häuser, W., Buchser, E., Finn, D. P., Dom, G., Fors, E., Heiskanen, T., Jarlbaek, L., Knaggs, R. D., Kosek, E., Krceviski-Škvarč, N., Pakkonen, K., Perrot, S., Trouvin, A.-P., and Morlion, B., 2021, “Is Europe

- also facing an opioid crisis?—A survey of European Pain Federation chapters” , *European Journal of Pain*, 25(8): 1760–1769.
- Hummer, R. A., and Hernandez, E. M., 2013,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adult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 *Population bulletin*, 68(1): 1.
- Mackenbach, J. P., Kulhánová, I., Artnik, B., Bopp, M., Borrell, C., Clemens, T., Costa, G., Dibben, C., Lundberg, O., Martikainen P., Menvielle G., Östergren O., Prochorskas R., Rodríguez-Sanz M., Strand B. H., Looman C. W. N., and Gelder R., 2016, “Changes in mortality inequalities over two decades: register based study of European countries” , *BMI*, 353.
- Olshansky, S. J., Antonucci, T., Berkman, L., Binstock, R. H., Boersch-Supan, A. and Cacioppo, J. T., et al. (2012).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due to race and educational differences are widening, and many may not catch up” , *Health affairs*, 31(8):, 1803–1813.
- Rehder, K., Lusk, J., and Chen J. I., 2021, “Deaths of Despair: Conceptual and Clinical Implications” ,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8(1): 40–52.
- Ruhm, C. J., 2018, “Deaths of Despair or Drug Problems?”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4188.
- Wilson, W. J., 1978,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한의학신문>, 2021,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홈술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관리 부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529. (검색일 2022.03.22.)
- OECD, 2018,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Gini, poverty, income, methods and concepts」.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검색일 2022.03.22.)
- OECD, 2022, 「OECD Statistics: Life expectancy at birth」,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22.03.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aths of Despair in Korea

Kwon, Jin
(Ye-myu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Min, Hye Young
(Sogang University)
Kang, Sun Kyoung
(Sogang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Practice, Mental Health

Key words Deaths of Despair, Suicide, Dangerous Drinking, Drug Addiction, Cause of Death Statistics, Social Studies

Summar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introduced the overall empir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despair that began in the United States, and applied them to Korean society.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apply the concept of hopeless death in a Korean context to the concept that seems to have accumulated influe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though it is somewhat unfamilia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rivation of the concept of despair and previous studies on despair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many scholars agreed that socioeconomic changes lead to cumulative deprivation and unhealth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n important discovery in that countries such as Germany did not have a pattern of despair due to a stable social security system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Based on statistics on the cause of death or social survey data in Korea, the rate of suicide, drinking, and drug deaths over the past decade reached 12.4% of the total death data. Dangerous drinking and suicidal thoughts were on the decline, but negative responses to social isolation and overall life conditions were increasing. Based on this empirical analysis, diagnosi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related to despair were discussed.

접 수 일 : 2023년 1월 3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월 21일